

## 산재노동자 올리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지연 지난해 평균 214일 걸려 ... 금속노조 “추정의 원칙 확대해야”

산업재해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금속노조가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규탄,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산재 처리 기간 단축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산재 노동자들 고통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약속했지만, 정말 말뿐”이라며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이 산재 처리 기다리고 근로복지공단 쫓아다니다 더 골병드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부위원장은 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1년 7월 노동부는 산재 처리 기간을 연내 100일,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2022년까지 60일 이



내로 단축하겠다고 금속노조와 약속했다. 이후 상황은 나아졌을까?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 따르면 2023년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기간은 평균 214일, 그중 근골격계질환은 150일 가까이 걸렸다. 노동부 약속과 산재 노동자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

서쌍용 부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 건수 증가로 산재 처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반복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없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 서 부위원장은 “제조업 특성상 근골격계질환을 얻는 조합

원들이 많다. 근골격계는 업무 관련성이 높고 명확한데도 산재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며 ‘근골격계질환 산재 추정의 원칙(아래 추정의 원칙)’ 확대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신속한 산재 처리를 목적으로 2019년 7월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 사례 등을 노동부 고시에 담았다. 그 내용을 기준 삼은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오고 있다.

금속노조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추정의 원칙’을 깬다고 들이대 산재 처리 단축 효과가 미미해졌다고 주장한다. 서쌍용 부위원장은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반증이 없다면 현장 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사용자 반대 등을 핑계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가 적다” 라고 꼬집었다. 추정의 원칙 적용률은 2022년 3.7%와 2023년 4.2%로 매우 낮다. 서

부위원장은 “명확한 근골격계질 환마저 잘 인정하지 않고 늦장 처리를 하니 산재 노동자들 병은 더 깊어진다” 라고 말했다.

노조는 ▲산재 지연 기간 단축

및 문제 해결 약속 이행 ▲추정 의 원칙 확대 적용 ▲선보장 후 평가 도입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서울고용노동청과 세종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 “동남정밀, 세진메탈지회 지켜내고 24투쟁 승리하자”

### 울산지부 28일 투쟁승리 결의대회 ... 세진메탈 직장폐쇄 중단, 동남정밀 성실교섭 촉구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8월 28일 오후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세진메탈지회·동남정밀지회 민주노조 사수! 2024 임금 및 단체협상 미타결사업장 승리! 금속노조 울산지부 투쟁승리 결의대회’ 를 진행했다.

울산지부 세진메탈지회는 지난 3월 24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응하지 않았다.

세진메탈지회는 7월 쟁의권을 가지고 7월 24, 25일 이틀간 전면파업을 진행했다. 7월 26일 현장에 들어가겠다는 공문을 전했지만,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세진메탈 노동자들은 이날 사측의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직장폐쇄 32일 차를 맞았다.

동남정밀은 최고경영자 악행 정도가 심각하다.

울산지부 동남정밀지회는 조기교섭 투쟁에 들어갔다. 동남정밀 최고경영자는 대놓고 노동조합을 ‘사회악’ 이라 비하한다. 대표이사마저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임하기 일쑤다.

사측은 교섭장에서 전임자 축소 등 사측 주장만 내세운다. 교섭은 답보 상태. 결국 동남정밀지회는 8월 7일부터 전면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울산지부는 세진메탈과 동남정밀 상황을 단순한 그곳 사용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민주노조 사수 투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윤석열 정부 반노동 정책 영향인지 2024년 울산지부 사업장 임금단체교섭 투쟁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험난하게 흘러간다. 8월 28일 현재, 울산지부 사업장 중에서 3곳만이 올해 교섭을 끝마쳤다. 32개 사업장이 아직 임단협 교섭 중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기호 울산지부장은 “특하면 노조 탄압, 전쟁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울산지부 8천 조합원이 하나 되어 싸울 것” 이라며 “반드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2024년 투쟁 승리하자” 라고 힘주어 말했다.